대한상공회의소
報道資料

弘報室 : (02) 6050-3601~5

‘주요 업종의 2008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’ 조사

이 자료는 6월 26일(목) 朝刊부터

※ 문의 : 산업조사팀 손세원(孫世遠) 팀장(6050-3471), 김현수(金顯洙) 대리(6050-3474)

반도체 · 석유화학 · 조선 ‘맑음’, 정유 · 섬유 · 건설 ‘흐림’

- 메모리반도체價 상승과 수급안정의 반도체, 수출조건 개선과 생산호조의 석유화학 상승세 전망
- 정유는 유류소비 감소세, 섬유는 원자재가 급등과 단가경쟁 심화 우려 등으로 침체 전망
- 전자는 호주, 러시아 등 수출시장 다변화, 자동차는 휘발유SUV 등 신차를 통한 내수진작 기대

올 하반기 반도체, 석유화학, 조선업종 등은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정유, 섬유, 건설업종 등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.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孫京植)가 최근 업종별 단체 자료를 취합·발표한 ‘주요 업종의 2008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조사’에 따르면, 메모리반도체價의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급안정화가 기대되는 **반도체**, 해외 경쟁사의 생산차질과 수출단가 상승 등 호재를 맞은 **석유화학**, 활발한 수주, 高선가 물량의 본격출하, 생산성 향상 등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**조선**업종은 하반기 전망이 밝은 것으로 조사됐다.

반면 고유가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정유**는 유류환급금 등 정부대책에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는 상황이고, **섬유**는 특별한 상승요인 없이 중국, 인도 등 후발국의 단가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등 하반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. 물량감소, 미분양, 건축자재價 급등의 3重苦를 겪고 있는 **건설**도 민간, 공공부문 모두 부진한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.

<표1> 하반기 업종별 기상도

구 분	생 산	내 수	수 출
반 도 체	☀	-	☀
석유화학	⛅	☁	☀
조 선	☀	-	☀
정 유	☂	☂	☁
섬 유	☂	☂	☁
건 설	-	☂	-
일반기계	⛅	☁	☀
철 강	☁	☁	⛅
전 자	☁	☁	☀
자 동 차	☁	⛅	☁

주 1. 기상도 : ☀ 매우 좋음, ⛅ 다소 좋음, ☁ 다소 나쁨, ☂ 매우 나쁨
2. 기상도는 전년대비 증가율과 업종별 평균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

한편 **기계**업종은 건설경기 부진과 중국산 기계·부품류의 확대로 내수부문에서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고, **철강**은 최대 수요산업인 건설산업의 침체로 고성장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. 이밖에 호주, 러시아, 중동 등 해외 자원대국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**전자**와 가솔린 SUV 등 내수 신차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**자동차**는 하반기에도 업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**반도체** - 하반기 생산 ☀ 수출 ☀

'08년 상반기 반도체업종은 원가수준을 밑도는 단가하락의 여파로 수출규모가 전년 동기대비 감소세(-6.3%)를 기록하였고, 생산실적 역시 채산성 악화에 따른 설비투자 축소, 감산 등으로 인해 -5.6%의 하락세를 나타냈다.

하지만 하반기에는 수출(16.9%), 생산(15.3%) 모두 큰 폭의 상승세가 전망됐다. 반도체 최대 성수기인 3분기를 기점으로 반도체價의 원가이상 회복이 예상되고, 후발업체 퇴출 등 업계구도 재편으로 수급안정화가 기대된다. 또한 'SSD(Solid State Drive·낸드플래시 기반으로 제조하는 HDD 대체용 제품)'시장의 확대 전망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
□ **석유화학** - 하반기 생산 ⛅ 내수 ☁ 수출 ☀

석유화학업종은 올 상반기 대만 포모사, 중국 마오밍석화 등 해외 석유화학업체들의 잇단 사고와 국내기업의 증설에 따른 생산능력 향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생산(7.6%)과 수출(13.5%)에서 호조세를 기록했다.

이러한 긍정적 요인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(생산 8.4%, 수출 14.1%), 수출단가 상승과 환율수혜효과 등으로 업황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나 국내 주수요처인 화섬산업의 회복지연으로 내수는 소폭의 상승(1.1%)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.

□ **조선** - 하반기 생산 ☀ 수출 ☀

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 조선은 '08년 상반기 설비투자의 지속적 증가와 高선가 물량의 본격적인 출하로 생산과 수출 모두 전년 동기대비 두 자리 수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조선업종의 하반기 전망은 활발한 수주실적과 생산성 향상으로 55.1%의 수출 급증이 예상되는 등 2006년 연간수출 200억불을 돌파한 이래 2년만에 2배인 400억불의 돌파가 기대되는 상황이다. 후판가격의 상승이 경영실적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출액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어 당분간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.

□ **정유** - 하반기 생산 ☂ 내수 ☂ 수출 ☁

정유업종의 경우 상반기 가격상승에 따른 수출조건 개선으로 수출부문만 소폭(1.5%)의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, 생산(-3,4%), 내수(-4.1%)는 하락세를 기록했다. 고유가 지속에 따른 유류소비 감소가 가동률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하반기에는 정부의 유가환급금 등 정부의 고유가대책으로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 외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어 생산(-4.2%), 내수(-6.0%)의 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. 수출은 베이징올림픽 영향과 신흥국의 수요 증가로 소폭의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.

□ **섬유** - 하반기 생산 ☂ 내수 ☂ 수출 ☁

반면 高기능·高부가제품으로의 전환 등 업계 구조조정 중인 섬유업종은 아직 뚜렷한 성과나 상승요인이 없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. '08년 상반기에는 화섬원료 및 원면(cotton)價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섬유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생산(-4.0%), 내수(-2.6%)에서 하락세를 기록했다. 중동지역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수출부문만이 2.9%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.

하반기에도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어 업종경기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. 오히려 추가적인 유가상승이나 중국, 인도 등 후발국에 의한 단가경쟁 심화 등이 하반기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**건설** - 하반기 생산 ☂ 내수 ☂ 수출 ☁

상반기 건설은 공공부문의 상반기 집중발주에 따른 상승세(10.9%)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침체(-9.4%)로 전체 국내 건설공사 수주실적은 -4.2%를 기록했다.

물량감소뿐 아니라 미분양, 건축자재價 급등('07.1월 대비 철강 121%, 아스콘 20%, 시멘트 23%) 등 부정적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. 그동안 호조세를 보였던 공공부문도 하반기에는 발주지연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(-0.7%)가 전망됐다.

□ **기계** - 하반기 생산 ⛅ 내수 ☁ 수출 ☀

'08년 상반기 기계업종은 수출부문에서 신흥시장의 수요지속으로 호조세(22.2%)를 유지한 반면 생산(3.2%), 내수(-3.0%)부문은 건설경기 부진, 중저가 기계·부품류 중국산 확대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침체된 양상을 보였다.

하반기에도 상반기의 업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.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재개가 예상되나 전반적인 경영악화로 인해 생산(7.1%), 내수(4.4%)에서 소폭상승에 머무를 전망이다. 수출의 경우는 16.4% 성장이 전망되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.

□ **철강** - 하반기 생산 ☁ 내수 ☁ 수출 ⛅

한편 철강은 철광석, 원료탄 등 원료가격 상승의 부담 속에서도 국내소비와 수출호조로 당초 예상보다 좋은 상반기 실적을 기록했다. 조기분양 물량집중에 따른 건설용 강재수요 증가, 철강가격 상승에 따른 가수요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8.7% 상승을 나타냈고, 수출 역시 높은 국제가격 시세와 원화절하에 따른 수출조건 개선으로 10.0% 성장을 기록했다. 생산도 국내소비와 수출호조로 7.9%의 상승세를 유지했다.

하반기에는 국제시세와 환율의 수출메리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최대 수요산업인 건설산업의 침체로 내수(8.7%→3.8%)와 생산(7.9%→4.5%)에서 상반기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.

□ **전자** - '08년 하반기 생산 ☁ 내수 ☁ 수출 ☀

'08년 상반기 전자업종은 내수회복 지연과 일부 경쟁력이 약화된 가전 및 전자부품 공장의 해외이전, 감산 등의 영향으로 소폭 성장(생산 3.7%, 내수 3.8%)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. 휴대폰·디스플레이 등 주력제품의 상승세와 원화 약세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수출만 11.7%의 증가세를 나타냈다.

하반기에도 수출 호조, 내수 부진의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. 특히 수출은 미국, 유럽시장 위주에서 호주, 러시아, 중동 등 자원대국으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어 9.8%의 高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.

□ **자동차** - '08년 하반기 생산 ☁ 내수 ⛅ 수출 ☁

전자업종과는 반대로 내수 호조, 수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는 업황에 큰 변화를 가져올 뚜렷한 외부요인이 없어 현재의 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. 상반기 동안 신차 출시효과와 LPG차량 판매호조 등으로 내수는 5.1% 성장을 기록했으나 미국, 서유럽 등 수출주력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는 수출은 0.5% 상승에 그쳤다.

하반기에는 침체에 빠진 경유 SUV시장을 대신할 가솔린 SUV모델의 출시와 동유럽, 중동, 중남미 등 신규 해외시장의 성장 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내수(4.9%), 수출(2.5%) 모두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. 생산부문은 임단협 시즌에 따른 노사분규 발생시 생산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.

<표2> 업종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

(전년 동기대비 증가율, %)

구 분	생 산		내 수		수 출	
	상반기(추정)	하반기(전망)	상반기(추정)	하반기(전망)	상반기(추정)	하반기(전망)
반 도 체	△5.6	15.3	-	-	△6.3	16.9
석유화학[2]	7.6	8.4	0.4	1.1	13.5	14.1
조 선	18.9	24.4	-	-	38.5	55.1
정 유	△3.4	△4.2	△4.1	△6.0	1.5	0.2
섬 유[3]	△4.0	△3.2	△2.6	△6.0	2.9	2.4
건 설[4]	-	-	△4.2	△8.6	-	-
일반기계	3.2	7.1	△3.0	4.4	22.2	16.4
철 강	7.9	4.5	8.7	3.8	10.0	6.3
전 자	3.7	2.9	3.8	3.1	11.7	9.8
자 동 차	0.8	3.3	5.1	4.9	0.5	2.5

주 1. 물량기준 : 자동차, 섬유(생산, 내수), 철강, 조선(생산=건조), 정유, 석유화학
금액기준 : 전자, 반도체, 일반기계, 섬유(수출), 조선(수출), 건설
2. 석유화학은 합성수지, 합성섬유원료, 합성고무부문 3대 부문 기준임
3. 섬유는 사류 기준임
4. 건설은 수주(공사계약규모) 기준임